

설부른 결정 금물... 입시 전략 수립에 초점

올 첫 전국학력평가, 점수에 연연 말고 대입 준비 시작단계로 활용
수능까지 긴 호흡 갖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해 완성도 갖춰 나가야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가 지난 25일 치러졌다. 특히 이번 학력평가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통합형 수능체제를 처음으로 적용한 시험이다. 입시전문가들은 이번 학력평가에서 ‘국어’와 ‘수학’이 작년 수능보다 어렵게, ‘영어’는 쉽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수험생이라면 이번 학력평가를 입시 방향을 설계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3월 학평 고3 수험생, 2022 수능 적응·취약점 보완 활용을=모의고사를 통해 처음 통합형 수능 체제를 접한 고3 수험생은 점수에 연연하는 것보다 점차 완성도를 갖춰나간다는 접근으로 학습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 특히 3월 학력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입 준비를 위한 시작 단계라

는 인식이 필요하다. 수능 당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3월 학력평가 결과만으로 영역·선택과목 응시 여부를 결정하려는 행동은 금물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학평 출제 유형을 분석하고, 고득점 문항과 오답을 따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정답을 맞추지 못한 문제는 틀린 이유와 정확한 풀이 방법, 핵심개념 등을 확실히 정리해둬야 다음 시험에서 향상된 점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회·과학탐구, 국어·수학 선택과목을 변경할 경우 새로 학습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선택과목 변경의 근거가 3월 학평 성적이라면 위험성이 매우 높다. 지금 선택한 과목의 완성도를 높이

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3월 학력평가 이후 11월 18일 수능 이전까지 5차례 모의고사(4월 14일, 6월 3일, 7월 7일, 9월 1일, 10월 12일)가 예정되어 있다. 수험생은 3월 학력평가를 시작으로 남은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으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선택과목 변경 금물, 완성도 갖추기·수시 지원 전략 등 추진=정시모집을 겨냥한다면 수능 고득점이 중요하지만, 수시모집 준비에 나설 경우 지원 대학·학과와 평가 요소에 대한 대비도 요구된다. 내신, 학생부가 반영되는 수시 전형이라면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비교과 활동 등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은 등급 충족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3월 학력평가 결과는 수능 학습과 더불어 대입 일정을 고려한 입시 방향 설정 자료로도 활용

할 수 있다.

2022학년도 수시모집은 9월 10~14일, 정시모집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각각 대학별로 3일 이상 원서접수를 받는다.

3월 학평으로 첫 단추를 낀 수험생은 수능까지 긴 호흡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완성도를 갖추는 대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유성룡 에스티유니타스 교육연구소장은 “이번 학평 성적 결과만을 보고 특정 영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6월 모의평가까지 본 다음에 포기 여부를 결정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영역별로 취약했던 분야와 단원에 좀 더 집중하고, 4월 학평에서 몇 점을 얻었다는 영역별 목표 점수를 세우고 대비하길 권한다. 목표가 구체적일 때 학습 효과도 향상된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이공대 졸업생 73명 GGM 취업 ... 전국 최대

코로나19로 청년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조선이공대 졸업생들이 GGM(광주글로벌모터스)에 대거 취업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선이공대학교(총장 조순제)는 “졸업생 73명이 ‘광주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기술직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합격했다”며 “미래자동차학부 졸업생들이 대부분으로 전기과, 생명환경화학공과 등 다양한 학과 학생도 포함돼 있으며, GGM 최종합격자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최초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지난 1월부터 기술직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하고 있으며, 1차 채용에서 광주·전남지역 인재의 합격률이 97.3%에 달했다.

특히 광주글로벌모터스의 1차 기술직 신입사원 모집은 186명 모집에 1만 2천여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67대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조선이공대는 호남지역 유일의 공학계열 특성화대학으로, 현장 맞춤형 실무양성 교육을 하고 있는 직업교육 전문대학으로 유명하다. 지난 2017~2020학년도 조선이공대 대기업·공공기관 취업자 수는 1226명으로, 생명환경화학공과의 경우 지난 2017~2020학년도 LG화학 최종 취업자를 104명 배출해 전국 최고 수준의 합격자 수를 기록한 바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동신대 '전문소생술 자격증' 과정 운영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팀 단위 교육이다.

동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최근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전문소생술(KALS Provider)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했다. 한국형 전문소생술 자격 과정은 실제 한국 의료 환경에 맞는

〈동신대 제공〉

고교학점제 기반조성 공동교육과정 대폭 확대

전남교육청, 1학기 온라인 28과목 36강좌 개설

전남교육청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대비, 올해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대폭 확대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1학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 마감 결과 지난해 20강좌에서 36강좌로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은 것은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원하는 과목을 개설했다는 점이 주요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쌍방향 수업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고급 화학·고급 지구과학·고급 생명과학 등과 같은 심화과목과 교

육학·철학·심리학·여행지리·공학일반·국제관계와 국제기구 등 교양과목과 진로선택 과목을 적절하게 반영했다. 전 강좌가 쌍방향 온라인수업으로 진행되며 수업의 질도 높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경희 전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에서는 성적 상위 학생 뿐만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 모두가 빛날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며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 평생교육 학습자 선제적 지원

광주 유일 평생학습 거점대학인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이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평생교육체제를 대비하여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신속대체위원회’를 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조선대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신속대체위원회’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SOS (Student Out-bound Support)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 성인학습자의 중도탈락 방지와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학습, 상담, 산학, 장학지원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했다.

학습지원을 위해서 ▲만학도 대학적응 프로그램 ▲신입생세미나 교과목 운영 ▲신입생-재학생 멘토멘티제가 있으며, 상담지원에는 ▲찾아가는 상담실 ▲CU평생 지도교수제 ▲미술/음악 심리치료를 진행한다. 또 산학지원을 위해서는 ▲재학생 이직/전직 지원 ▲재학생 자영업자 컨설팅 ▲CEO컨설팅 등을 개최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창업교육 선도’ 재학생 스타트업 육성 박차

취업·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유망한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대 창업교육센터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일환으로 기술융합형 스타 창업가 발굴을 위해 ‘2021 GU-창업동아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동아리 20팀을 선발하며 아이팀 개발을 위한 활동 지원비와 재료비,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캠프 참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대는 지난해 창업동아리 22개 팀을 지원해 창업 아이팀 특허출원 9건과 학생대표의 창업기업 5개사를 등록하는 성과를 이뤘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자대 일자리센터

진로지도 워크북 제작 배포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대학일자리센터는 학생 진로 및 취·창업지도를 위해 진로지도 워크북(이하 KWU 3UP DREAM)을 제작·배포한 다.

‘KWU 3UP DREAM’은 학생용 워크북과 교수지도 가이드북을 연계 개발해 진로·취·창업 콘텐츠를 통한 효율적인 학생지도 프로세스를 확립하고자 개발됐다. KWU 3UP DREAM은 1학기에 전체 학과 신입생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며, 교직원에게도 교수가이드북을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박상희)는 “KWU 3UP DREAM 개발 및 배포를 통해 광주여자대 학교 학생들의 취·창업 역량강화와 지도의 일원화 및 효율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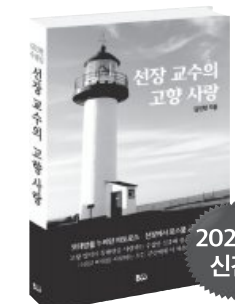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①~⑤

바다에는 李충무공, 육지에는 鄭충무공이 있었다!

총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은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틱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를 교수의 바다 이야기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나)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예제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가!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에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은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형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정유재란 7주년을 맞아 펴낸 한중일사의 공동연구서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년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량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